

### 수지·이준기 서울드라마어워즈 한류드라마상



광주 출신 배우 수지가 서울드라마어워즈에서 한류드라마상을 받는다.

27일 서울드라마어워즈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드라마 '구가의 서'의 수지와 '아람사또전'의 이준기가 한류드라마상 배우 부문 남녀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로 8회를 맞는 '서울드라마어워즈 2013' 시상식은 9월5일 오후 5시10분 국립극장에서 열린다. 조직위는 미국 ABC의 '미스트리스(Mistresses)'가 올해 초청작으로 선정돼 주연 배우 김윤진이 시상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나향도 에코피아 대표, NGO 박사학위



나향도(45) (주)에코피아 대표이사가 전남대 2013학년도 제61회 학위수여식에서 정책과정에서의 'NGO 역할에 관한 연구 -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중심으로 -'라는 논문으로 국내에서 네 번째로 NGO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에서는 오랜 찬반 논쟁 속에 이명박 정부의 임기 동안 추진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NGO들이 국내 연대 및 국제연대를 통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분석했다.

### 한글학회 광주·전남지회 오늘 학술대회



한글학회 광주·전남지회(지회장 손화하, 전남대 국문과교수)가 28일 오후 1시30분부터 전남대 인문대학 학술회의실(문학부 113호실)에서 '2013 여름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전남대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대상, 인식, 어문 생활'이라는 주제로 ▲마을 이름 지명으로 살펴본 전남인들의 의식구조 ▲'배기'류 그릇 명칭의 어원 ▲아니오, 아니요 표기 ▲시각 감각어 의미 ▲다이어 '데다'의 인지의미론적 접근 ▲국어교육에서의 바람직한 통합을 위한 문법 영역의 내용 체계 구축 등 어문 생활에서의 흥미로운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 사흥만 장흥군 수협장 시집 펴내



사흥만(61·사진) 장흥군 수협장이 최근 40여년 수협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엮은 시집 '어머니의 바다'를 펴냈다.

(사)한림문화재단에서 기획 출간한 172페이지의 이 시집에는 지난 2006년에 문학

춘추 시 부문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문단에 데뷔한 이후 80여편의 작품이 수록돼 있다. 시인의 수장은 전남대 명예교수는 발문에서 "그의 시 소재는 '바다'로 파도, 바다의 언어, 수평선, 솔 취한 바다, 밀물이 데워주듯, 바다소리, 바닷가를 걸으며, 간조의 설음 등 시재만 봐도 뿌리 내린 바닷가에서 진솔한 삶을 긍정적으로 묘사했다"고 소개했다.

또 사 수협장은 지난해 발간된 수협창립 50년사 책자의 권두시를 작성하기도 했다. /장흥=김용기기자·충무취재본부장 kykim@

### 광주대 교수된 콩고왕자 음비토나 씨



아프리카 왕자에서 난민으로 한국에 온 음비 토나(왼쪽에서 세번째)씨가 교수로 일하게된 광주대에서 가족과 활짝 웃고 있다.

## “조국 떠난후 고난의 12년 이었죠”

오는 9월부터 광주대학교에서는 새로운 강좌가 시작된다. '인권과 평화'라는 이름의 교양수업으로 이를 맡게 된 주인공은 음비 토나(46·Yiombi Thona) 광주대 자율융복합전공학부 교수다.

왕자 신분이었지만 민주화 운동을 하며 반정부 인사로 낙인 찍혔고 우여곡절 끝에 중국으로 탈출했다. 하지만 콩고와 중국이 아주 긴밀한 관계였기에 안심할 수 없었고 다시 한국행을 택했다.

조국에서는 부족함 없는 생활을 했지만 한국에서의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지난 2002년부터 서울, 가평, 인천을 외국인노동자로 떠돌며 동물 사료 공장, 옷 제조업체 등에서 어려움도 많았다.

6년 넘게 밤낮으로 일한 끝에 2008년 2년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같은 해 8월 정부 의위 측에 속속이며 살고 있던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었다. 그는 한국에서 초창기에 겪었던 어려움을 떠올리며 난민들의 고통을 호소했다.

음비 교수는 "한국은 단일 민족이란 생각이 강하고 남아선호사상 전통이 남아 있어 외국인노동자와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국민의 힘으로 민주화를 이룩한 한국이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코리아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오지만 가난과 멸시 때

### 민주화 운동하다 반정부 인사 낙인...탈출뒤 한국행 김혁중 총장, 인권단체 활동·강연 경력 인정 채용

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콩고에 머물고 있는 난민들보다도 한국에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못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한국에 온 지 어느덧 12년.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처음 찾은 한국은 말 그대로 '불편한 나라'였다. 가장 큰 문화적 차이는 '한국식 첫인사'였다.

음비 교수는 "처음 만난 사람이 나이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왜 한국에 왔는지 물어보면 이해할 수 없었다"며 "만약 외국에서 그런 질문을 던졌다면 정보기관 요원이나 스파이로 오해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음비 교수는 "한국 땅에서 교수라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 준 광주대학교 김혁중 총장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혁중 총장은 인권운동단체와 난민구호단체에서 활동하며 국내 대학에서 인권 관련 특강을 했던 음비 씨의 경력을 인정, 전직 교수로 임용했다.

아프리카 왕자에서 머나먼 한국 땅을 찾은 음비 교수는 이제 한국인의 정에 푹 빠졌다. 하지만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조

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다. 그래서 국적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 그는 자신과 가족들을 받아 준 한국에 진심으로 고마워하면서도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나라를 버릴 수는 없다고 했다.

음비 교수는 한국 땅에서 교수라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 준 광주대학교 김혁중 총장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혁중 총장은 인권운동단체와 난민구호단체에서 활동하며 국내 대학에서 인권 관련 특강을 했던 음비 씨의 경력을 인정, 전직 교수로 임용했다.

음비 교수는 "한국 땅에서 교수라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 준 광주대학교 김혁중 총장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혁중 총장은 인권운동단체와 난민구호단체에서 활동하며 국내 대학에서 인권 관련 특강을 했던 음비 씨의 경력을 인정, 전직 교수로 임용했다.

음비 교수는 "한국 땅에서 교수라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 준 광주대학교 김혁중 총장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혁중 총장은 인권운동단체와 난민구호단체에서 활동하며 국내 대학에서 인권 관련 특강을 했던 음비 씨의 경력을 인정, 전직 교수로 임용했다.

음비 교수는 "한국 땅에서 교수라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 준 광주대학교 김혁중 총장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혁중 총장은 인권운동단체와 난민구호단체에서 활동하며 국내 대학에서 인권 관련 특강을 했던 음비 씨의 경력을 인정, 전직 교수로 임용했다.

음비 교수는 "한국 땅에서 교수라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 준 광주대학교 김혁중 총장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혁중 총장은 인권운동단체와 난민구호단체에서 활동하며 국내 대학에서 인권 관련 특강을 했던 음비 씨의 경력을 인정, 전직 교수로 임용했다.

### 퇴직후 아내 돕던 김능환 전 선관위장 로펌행

대법관을 지내고서도 아내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을 해 화제가 됐던 김능환(62)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이 대형 로펌행을 결정했다.

김 전 위원장은 27일 "9월부터 법무법인 울촌에서 변호사로 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1980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용돼 법관의 길을 걸었으며 2006년 대법관에 이어 2011년에는 선관위원장을 역임했다.

공직에 있으면서 검소한 생활로 '청백리'라는 별칭을 얻었고 '박근혜 정부'의 초대 총리로도 거론됐지만 "대법관 출신이 행정부의 다른 공직을 맡는 게 적절치 않다"며 고사한 바 있다.

올 3월 중앙선관위 위원장에서 퇴임할 당시에도 향후 거취에 대해 "아내의 가게를 도우며 소시민으로 살아갈 것"이라며 "당분간 공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법조계 고위 공직자들이 퇴임 후 로펌으로 직행하는 '전관예우' 관행과 달리 아내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해 화제를 모았다.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 화족

▲봉필호(광주시 서구청 안전총괄과장·전 서창동장)·이순자씨 장남 황세근 백리인·김정숙씨 오녀 미경양=31일(토) 오전 11시 50분 힐리데이인광주호텔 3층 로즈홀. ▲최동용·박춘심씨 아들 현우군 서상재(전 전남도청 건설국장)·문남희씨 딸 원경양=9월 1일(일) 낮 12시 50분 힐리데이인광주호텔 3층 로즈홀. ▲나상우(전 전남도교육청 행정과장)·최선숙씨 차남 지환군 김용근·이점기씨 차녀 해민양=9월 7일(토) 낮 12시 The-K 서울호텔(구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1층 한강홀, 피로연=31일(토) 오후 6시 호텔 프라도 3층 크리스탈룸.

#### 동창동문회

▲승원고동창동문회 정기월례회의=9월 3일(화) 오후 7시 능성동 상록웨딩홀 4층 062-384-7447.

####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시 062-1366. ▲음악가 정율성 선생기념사업회(회장 강원규) 월례회=9월 3일(화) 오전 11시 50분 힐리데이호텔 6층 연회장 062-652-8800.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마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사회복지법인 수안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 판정 1~2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062-959-2340.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부부갈등·가족갈등·체류·국적취득 등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로 인해 긴급보호가 필요할 때 자

국어로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가 가능한 기관. 경찰, 병원 보호시설 및 유관기관이 요청하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통역을 통한 긴급지원서비스함. (광주센터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062-366-1366, 367-1577, 368-1577.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기숙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광주 여성의 전화 무료 상담 및 법률·의료비 지원=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차별, 이주여성 문제. 상담 062-363-0442~3.

#### 모집

▲풍수지리 시민무료 공개강좌(장학회)=31일(토) 오후 1시30분~6시 남부대 삼매관 6225호 (풍수지리 천년의 허와 실, 영상강의 토의, 혈토와 지도로 명당찾기, 유품

#### 공개)

010-8000-3190.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담배, 왜 끊기 어려운가요?" 전문가 초청 공개강좌=9월 24일(화) 오후 7시 30분~9시(무료) 062-526-3370. ▲'학습동기향상 및 시간관리' 집단상담 프로그램=20일·22일·27일·29일(오전 10시~11시30분), 장소는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집단상담실, 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 선착순 10명062-268-1388. ▲소통·방통 유쾌한 가족을 위한 영화치료-토론회 참가자=28일(수) 오전 9시 30분~12시 30분, 장소는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집단상담실,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자녀 또는 학부모 062-268-1388. ▲'함께 안아주세요! 함께 키워주세요!' 위탁부모=부모의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기간 위탁하여 보호할 수 있는 위탁부모를 모집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 062-351-1206.

#### 부음

▲밀알중앙회 영산강환경대학 명예 환경감시원 양성과정 수강생=접수일 9월 3일(화)까지(매주 화요일 강좌=9월 24일(화) 오후 7시 30분~9시(무료) 062-526-3370. ▲광주전남불교선도회 합창단=불교합창단 창단에 앞서 합창단원으로 활동할 불자를 모집. 노래를 좋아하는 불자(55세 이하) 무각사 내 불교회관 2층 법당 062-385-1336.

#### 대병원 장례식장 2분항소

062-231-8902. ▲김순남씨 별세 문용덕·용철·용진·영심·옥씨 모친상=발인 28일(수)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최금남씨 별세 선숙·선식·두희·

#### 미금·선자·선단·선숙·정숙·선희씨

부친상=발인 28일(수) KS병원장례식장 제2분항소 062-960-4444. ▲김평기(전 전남도의원)씨 별세 옥기(전남도의원)씨 형제상=발인 28일(수) 나주 영산포 한우리장례식장 061-335-4949.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b>故김기남 님(남/77세)</b> 子/子: 김용규/이만희, 친형/정애린, 정희/김경자 女/女: 김보민/김형용, 미/김용일 ●호 실: 201호 ●장 지: 나주다도	<b>故서동용 님(남/78세)</b> 子: 서석봉, 석배, 석진 女/女: 정애/정영석, 연진/박근수, 연숙/차영주 ●호 실: 401호 ●장 지: 전도군 근내면
<b>故장재범 님(남/69세)</b> 子/子: 장신형/이준현, 호현/최숙희 未亡人: 한승순 ●호 실: 101호 ●장 지: 영락공원	<b>故오종태 님(남/48세)</b> 子: 오지현 女: 오영란 未亡人: 김선희 ●호 실: 102호 ●장 지: 영락공원
<b>故이재열 님(남/87세)</b> 子/子: 이재형/황정래, 민형/김승희, 정행/신애란, 광형/김문경 女/女: 이순남/한성기, 순희/정영란 未亡人: 오재순 ●호 실: 301호 ●장 지: 함평야야	

孝 금오 장례식장 http://www.tmykumho.com 문의 (062)227-4000